



제목	세계공의회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분도출판사
발행일	2005. 6. 1.
저자	후베르트 에딘 최석우 옮김
출판도시	왜관
페이지수	227
ISBN 또는 ISSN	978-8941905134

내용 요약

이 책은 기독교 2천년의 역사 동안 개최되었던 공의회를 연구한 책으로서, 공의회 개념 정의로 시작하여 시기별 공의회 의미와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가톨릭교회의 교회법에 따라 세계공의회 개념을 정의한다. 세계공의회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 규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교황이 소집하고, 주교들과 특정 교구 관할권자들이 참석하며, 교황의 주재로 논의된 사항들을 교황의 재가를 통해 의결하는 회의를 가리킨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주교 회의가 중요한 교회체도로 인정되었지만, 주교 회의는 세계공의회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주교 회의나 기타 하위 공의회는 제외하고, 교회가 인정한 21회의 세계공의회만 다루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교가 콘스탄티누스로부터 공인을 받고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제국 전체의 주교들을 소집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생겼다고 본다. 교회의 일치와 질서가 국가적 이해관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관주교제도와 총대주교제도가 완성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유형의 공의회가 나타났으며, 게르만계 국가들에서는 국왕이 교회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형의 공의회가 생겨났다고 한다. 이러한 유형의 제국 공의회 또는 국가 공의회는 세속 권력자들의 제국 의회와 제휴하기도 했지만, 제국 공의회와 제국 의회가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의회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초기 공의회부터 현재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의회가 탄생했음을 보여준다.